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책 속 한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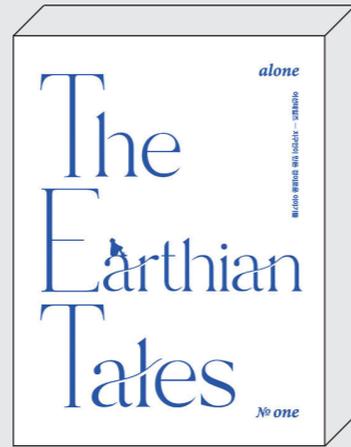
“가끔 생각한다. 그가 왜 다시 내게 연락을 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철 음식을 사주었는지, 우리가 왜 3년 동안 만남을 이어갔는지. 생각의 끝에는 언제나, 그 일들의 이유가 모두 같으며 그러므로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곧 방어가 제철인 계절이 온다.”



방어가 제철
저자 안운 | 출판 자음과모음

책 속 한줄

“한국 SF잡지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그 잡지들이 남긴 족적은 분명하고, 또 대단했다. 당신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장르가 있다.”



The Earthian Tales: 어션 테일즈 NO.1
저자 김보영 | 출판 아작

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책 속 한줄

“그러나 누구도 시인들만큼 잘 묻기는 어렵다. 나는 그들로부터 질문하는 법을, 그 자세와 열도와 끈기를 배운다. 그것이 시를 읽는 한 가지 이유다. 인생은 질문하는 만큼만 살아지기 때문이다.”



인생의 역사
저자 신형철 | 출판 난다

책 속 한줄

“비닐을 샀더니 매트리스 토퍼가 왔다. 기왕 샀으니 요긴하고 쓸모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구를 위해 모두가 채식할 수는 없지만
저자 하루치 | 출판 판미당

#휘귀친구마라탕이 추천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상실의 슬픔을 겪고,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책 속의 '나(안라)'와 '정오'는 나의 친오빠 '재영'의 죽음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엄마의 장례식을 계기로 연락을 하게 되고 둘은 제철 음식을 먹으며 3년을 보내고, 마지막에 '나는 셋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한다. 방어의 계절은 매년 돌아온다. 정오가 방어 및 제철 음식을 '나'에게 사준 이유는 누구보다 '재영'이 그리웠고 '나'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믿는다.

#지옥의공리주의자가 추천합니다

근근이 모은 돈으로 서울까지 나가 잡지를 모셔 오고, 뒤편의 추천 SF 목록에 위시리스트를 지우듯 도서관 청구기호를 달며 빌려다 읽었다. SF라는 이름을 단 작품을 보면 실망해 떠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작품의 영성 한 짜임새와 장르를 핑계로 무마하려는 시도에 질려 'SF는 내 취향이 아니구나' 하며 도망치기 일쑤다.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늘 위로 쓰아 올려지고 있다. 지구에서 지구인들이, 계절마다 만들어낼 경이로운 이야기가 이 책 안에서 펼쳐진다.

#천사소녀답정너가 추천합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들을 소개해 주는 시화집이다. '공무도하가'를 시작으로 시를 쓴 저자의 의도나 그 안에 담긴 단어와 문장의 여러 해석을 그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시를 매개체로 고통, 사랑, 죽음, 역사를 카테고리 나눈 책 넘기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에, 이 책을 만나보자.

#디카페인유자차가 추천합니다

요즘 지구가 걱정된다. 사실 지구보다 지구에 사는 내가 걱정된다. 그래서 인지 채식과 환경 이야기에 귀를 쫓긋 세우게 된다. 완전한 채식은 하기엔 아직은 고기가 너무 맛있지만 그 맛 너머에 있는 다른 생명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새해에는 고기를 3일에 한 번 먹어보리라 다짐해본다. 이 책을 읽으며 일회용 비닐을 다회용 비닐로 활용해보겠다는 다짐도 추가한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모여 지구에서 내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구가 조금만 늦게 분노하기를 빌어본다.